

양돈인 스스로가 만드는 양돈산업의 미래

-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건강한 양돈산업의 미래를 열자



김 동 환 회장
대한양돈협회

월간양돈이 처음 우리 양돈농가들에게 소개된 이래 어느덧 창간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9년 7월 1일 창간이래 월간양돈은 지금까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국내 양돈산업과 굴곡을 함께하며 어느덧 국내 양돈산업을 선도해가는 최고의 양돈전문잡지로 성장했습니다.

월간양돈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 즉 양돈농가들의 애정어린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월간양돈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성원해 주신 양돈인 여러분과 양돈관련 기관, 단체,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월간양돈이 성장하는데 영양분과도 같은 꼭 필요한 광고로 지속 후원해주신 관련업계 광고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양돈 신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주옥같은 원고를 집필해 주신 수많은 집필진 여러분과 월간양돈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편집방향을 지도해 주시는 편집위원 여러분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8년간 우리 월간양돈은 양돈인들의 권익 대변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전국 양돈농가들에게 정확한 양돈정보와 사회적 이슈를 전달하고 최신 기술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돈농가의 권익보호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도 큰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또한 양돈농가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때로는 정부와 양돈산업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국내 양돈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등 건전한 저널리즘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월간양돈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양돈농가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튼튼한 그물 역할을 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월간양돈은 양돈현장의 우수한 모범사례를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양

농민들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우리 '양돈산업'은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에 이은 한·EU FTA 추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외국 양돈선진국들과의 무한경쟁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배출 비용 증가 및 물량 감축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 소모성 질환의 피해로 인한 생산성 하락, 사료비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거센 풍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돈산업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돈산업'이라는 배에 승선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야 할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양돈인들이 흔들림 없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그 변화를 주도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가짐은 자기반성부터 출발합니다. "배가 격랑을 만나면 선원들은 한 손으로 기도하고, 한 손으로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는 두 뭇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돈산업이라는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하기 위해 과연 나는 이 배에 필요한 선원인가? 나는 선원으로서 제 뭇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 농가가 스스로 자연순환농업의 성공적 실천으로 가축분뇨 문제를 넘어서고 소모성 질환 극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가 찾는 우수하고 안전한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돈인 스스로의 '각오와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바로 성장엔진이자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보다 '양돈산업'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은 공동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월간양돈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양돈의 흐름 속에서 돼지고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한국 양돈산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양돈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신기술을 정확히 짚어내고 소개하는 등 양돈산업을 1등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린 신록이 무성한 녹음이 되어 우거지듯 월간양돈의 왕성한 활약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월간양돈이 양돈인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하는데, 농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독서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월간양돈이 창간 28주년을 맞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전국의 모든 양돈인 여러분과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월간양돈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돈